
 금융결제원 <small>Korea Financial Telecommunications & Clearings Institute</small>		보 도 자 료		 전국은행연합회	
		배포시부터 보도 가능			
작성부서		[금융결제원] 금융정보업무부, [전국은행연합회] 수신제도부 [금융위원회] 은행과, [금융감독원] 은행감독국			
책 임 자			담 당 자		
[금융결제원]		송창수 부장 (531-1700)	문영석 팀장 (531-1720)		
[전국은행연합회]		이병찬 부장 (3705-5326)	박준범 과장 (3705-5254)		
[금융위원회]		이윤수 과장 (2156-9810)	김윤희 사무관 (2156-9814)		
[금융감독원]		류찬우 국장 (3145-8020)	김용태 팀장 (3145-8050)		
배 포 일	'15. 6. 30.(화) 14:00	배포부서	대외협력팀 (531-1140) 홍보실 (3705-5220)		총 13매

제목 : 7월 1일부터 자동이체 통합관리 홈페이지(Payinfo)에서 자동납부 연결계좌를 한눈에 조회·해지하실 수 있습니다.

- ▶ 7월 1일 금융결제원의 「자동이체통합관리시스템」(www.payinfo.or.kr) 오픈
 - 요금청구기관에 등록된 자동납부 현황을 일괄 조회하고 불필요 정보는 해지 가능
 - 자동납부 연결계좌의 변경 서비스는 10월부터 이용 가능
- ▶ '16년 6월까지 단계적으로 자동이체 조회·해지·변경 서비스 확대
 - ① 요금청구기관에 대한 자동납부: 대형 기관('15.10월) → 전체 요금청구기관('16.6월)
 - ② 개인간 자동송금: Payinfo 및 전국 은행지점('16.2월)
- ▶ 은행권 자동이체 변경서비스 안정화 후 「계좌이동서비스」 고도화 추진
 - 서비스 제공범위, 참가 금융회사 등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 검토

I 추진 배경

- 고객이 주거래은행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자동이체 출금계좌를 요금 청구기관*별로 일일이 해지하고 새로 등록해야 하는 번거로움 발생

* (예) 카드사, 보험사, 통신사, 학원, 신문사, 아파트

- 요금청구기관이 계약 종료 후 자동이체를 해지하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어 고객 스스로도 자동이체 등록 현황을 점검할 필요

- ➡ 고객 자산관리의 안전성 및 편의성 제고를 위해 '은행권 공동*'으로 자동이체 관리서비스 제공 방안을 마련

* 「금융업 경쟁력 강화방안」(13.11월)에서 은행권 계좌이동서비스 '16년 본격 실시 발표
→ '14.2월 이후 금융결제원·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실무 TF를 운영 중(총 42회 개최)

계좌이동서비스(Account Switch Service) 개요

- (주(主) 서비스) 자동이체 연결계좌 변경

< 자동이체의 유형 >

- ① (자동납부) 요금청구기관이 물품·서비스 제공 계약에 따라 발생한 이용 요금을 고객이 지정한 계좌에서 출금(예: 보험료, 휴대폰요금)
- ② (자동송금) 고객이 스스로의 필요에 따라 직접 설정한 입금계좌·이체금액·주기 등 이체조건에 따라 출금(예: 적금, 회비, 월세)

- (부가 서비스) 기존 계좌 해지, 잔고 이전, 리다이렉션(Redirection)* 등을 각 국가 금융여건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도 있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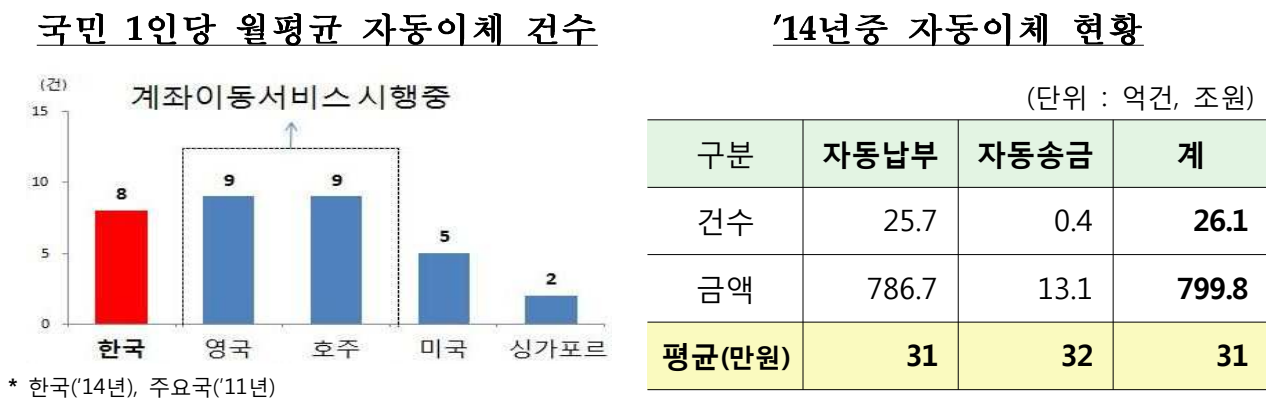
* 요금청구기관이 오류로 기존 계좌에 출금 요청시 요금청구기관으로 변경내역 통보

※ (해외사례) 영국('09년, Current Account Switch Service), 호주('08년, Account Switching Facilitation Package) 등 소수 국가에서 '계좌이동서비스' 시행 중

- 영국의 경우 자동이체 및 입금 연결계좌 변경, 기존 계좌 해지, 잔고 이전, 36개월간 리다이렉션 등 가장 발달된 형태의 계좌이동서비스 제공 중
(영국 은행은 계좌유지 수수료 부과 → 신규 계좌 개설시 기존 계좌 해지 및 잔고 이전 권장)

II 자동이체 및 관련 예금 현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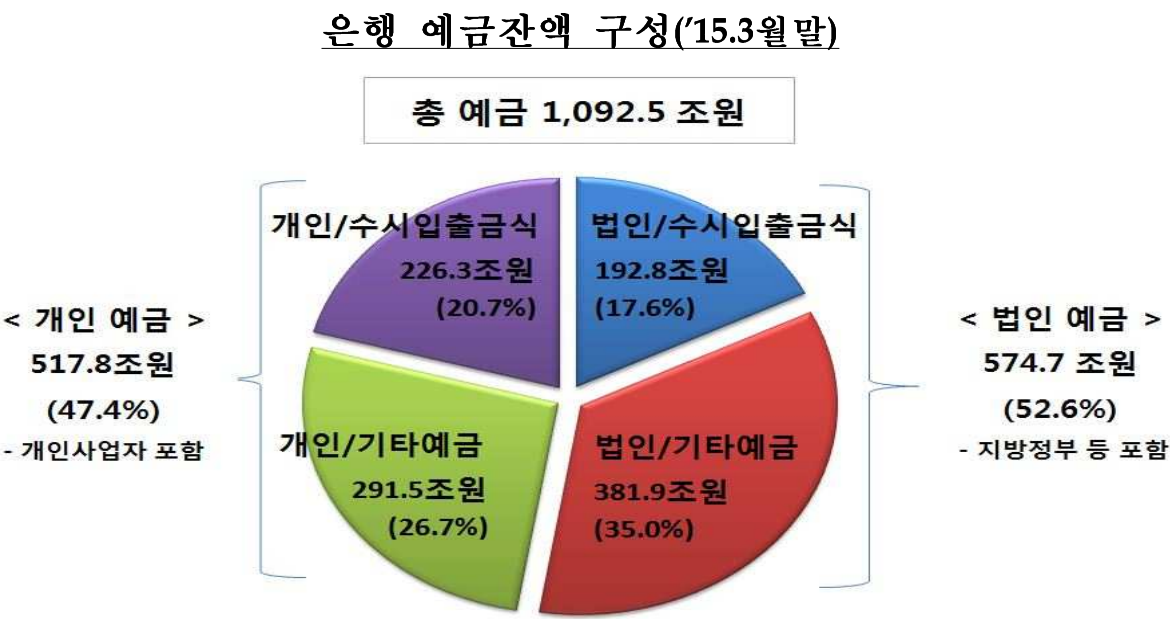
□ '14년중 처리된 자동이체 건수는 26.1억건, 금액은 799.8조원으로 국민 1인당 월평균 이체건수는 8건, 건당 평균 이체금액은 31만원으로 추정



□ '15.3월말 자동이체 등록이 가능한 수시입출금식 예금*의 잔액은 개인예금 226.3조원(총예금[1,092.5조원]의 20.7%), 법인예금 192.8조원(17.6%)

* 수시입출금이 가능한 보통예금, 저축예금(법인은 기업자유저축도 포함)

○ 수시입출금식 예금의 계좌수는 2억개 수준으로, 이 중 개인계좌가 대부분(1억9천만개, 97.1%)이며 월평균 예금잔액이 30만원 이상인 활동성 계좌수는 6천만개(31.7%) 정도로 추정



III 서비스별 추진 일정

◆ 자동이체 유형별로 전산개발 일정에 따라 단계적으로 추진

- (자동납부) ①Payinfo에서 조회·해지(‘15.7월) → ②대형 요금청구기관 중심으로 변경(‘15.10월) → ④전체 요금청구기관으로 확대(‘16.6월)
- (자동납부 + 자동송금) ③Payinfo 및 전국 은행지점에서 조회·해지·변경(‘16.2월)

1. ‘자동납부’ 조회·해지 (‘15.7.1.)

- Payinfo에서 은행 등 52개 금융회사에 등록된 ‘자동납부’ 목록을 한눈에 조회하고, 불필요한 정보는 건별로 선택·해지* 가능

* 자동납부 해지 신청시 2영업일내(신청일 제외) 처리 완료

- Payinfo는 세계 최초의 금융회사 통합 인프라로, 국민 누구나 회원가입이나 비용부담 없이 공인인증서로 이용 가능

* 인터넷 이용이 어려운 고객은 ‘16.2월 이후 전국 은행지점에서 서비스 이용 가능

- 7월 1일부터 은행 등 52개 금융회사에 개설된 개인·법인 계좌의 전체 자동납부 목록을 조회 및 해지*할 수 있으나,

* 은행 외 33개 금융회사(우체국, 새마을금고, 신용협동조합, 상호저축은행, 산림조합, 23개 증권사, 5개 외은지점)에 등록된 자동납부는 7월 중 해지 가능(조회는 7월 1일부터 가능)

- 학교 스쿨뱅킹(급식·교재비), 아파트관리비 등 일부 내역은 Payinfo 오픈 후 전산개발 일정에 따라 순차적으로 서비스 이용 가능

자동이체통합관리시스템(Payinfo) 개요

- 「자동이체통합관리시스템」(www.payinfo.or.kr)은 각 금융회사에 분산된 자동이체를 국민 누구나 무료로 종합 관리할 수 있는 세계 최초의 통합 인프라
 - 은행 등 52개 금융회사의 계좌에 등록된 약 7만개의 요금청구기관에 대한 약 7억개 자동납부, 은행간 약 5천만개 자동송금 정보를 통합관리
 - 고객 자산관리의 안전성 및 편의성 제고를 위해 금융결제원과 은행권이 TF를 구성하여 요금청구기관, 펌뱅킹 대행사 등의 협조를 통해 구축
- * (시스템 구축) 개발기간 14개월('14.5~'15.6월), 구축비 123억원(금융회사 부담)
 (시스템 운영) 운영기관 금융결제원, 운영비 매년 20억원 내외 예상(금융회사 부담)



2. '자동납부' 변경 및 고객 동의자료 열람 ('15.10월)

- 통신·보험·카드사 등 대형 요금청구기관에 대한 자동납부부터 변경서비스를 시작하고 요금청구기관*의 범위를 지속 확대

* 현재 자동납부시스템을 이용하고 있는 요금청구기관은 약 7만개 수준으로 추정 → 통신·보험·카드 3개 업종 요금청구기관은 총 62개(전체 자동납부 건수의 66.7% 차지, '15.6월)

- Payinfo에서 기존 계좌에 연결된 자동납부 내역을 신규 계좌로 변경 신청시 5영업일내(신청일 제외)* 반영

* (예) 월요일 오후 1시 계좌변경 신청 → 해당 은행에서 다음주 월요일까지 반영 → 다음주 화요일 아침 9시부터 Payinfo에서 신규 계좌로 변경된 내역 조회 가능

- 변경 완료 전 자동납부 발생시 기존 계좌에서 출금됨에 유의

- 불확실한 자동납부가 조회될 경우 고객이 직접 작성한 자동납부 동의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이를 Payinfo에 순차적으로 집적
- 금융회사도 요금청구회사가 고객 계좌에서 자동납부 방식으로 출금 신청시 고객의 동의자료를 전달받아 결제기능의 안전성을 강화

3. '자동송금' 조회·해지·변경 ('16.2월)

- Payinfo(온라인) 및 전국 은행지점(오프라인) 어디서나 자동납부 뿐만 아니라 자동송금에 대해서도 조회·해지·변경서비스 이용 가능
- 주거래은행 변경 희망 고객은 은행지점에서 계좌를 개설하면서 기존 계좌에 연결된 자동이체를 한꺼번에 신규 계좌로 변경 가능

4. '전체 요금청구기관'에 대한 자동납부 변경 ('16.6월)

- Payinfo 및 전국 은행지점에서 신문사·학원 등 중소형 업체를 포함한 전체 요금청구기관에 대한 자동납부 변경 가능
- 다만, 고객이 은행 및 요금청구기관과 체결한 계약에 따라 타행 계좌로 변경이 불가능*한 경우에는 서비스 이용이 제약

* (예) 학교 스쿨뱅킹, 아파트관리비 등 요금청구기관이 특정 은행을 지정한 경우

< 향후 추진일정 >

이용경로	자동이체	서비스 (요금청구기관 범위)	'15년						'16년									
			7	8	9	10	11	12	1	2	3	4	5	6	7	8	9	...
Payinfo (온라인)	자동납부	조회·해지 (전체)	'15.7월 ~ (은행 등 52개 금융회사)															
		변경 (대형)															'15.10월 ~ (은행)	
		변경 (전체)											'16.6월 ~ (은행)					
	자동송금																	
전국 지점 (오프라인)	자동납부 자동송금	조회·해지·변경							'16.2월 ~ (은행)									

자동이체 유형별 서비스 일정

구분	항목	요금청구기관	서비스 일정			
			조회	해지	변경	
자 동 납 부	기본 일정 (일부는 별도 일정 제시)①		2015.7월		2016.6월 까지 완료	
	통신료	휴대폰요금	이통사 등	KT 2015.10월	3대 이통사 (SKT, KT, LGU+) 2015.10월 기타통신사 2016.6월까지	
		케이블TV, IPTV				
		인터넷요금				
		유선전화요금	KT 등			
	보험·연금	생명·손해 보험	보험사	2015.10월	2015.10월	
		건강보험	국민건강보험공단			
		국민연금(임의가입)	국민연금공단			
		공제회	노란우산 등			
	카드	신용카드	카드사	2015.10월		
		백화점카드	백화점	2015.10월		
	주거비	전기요금	한국전력	2015.10월		
		상하수도요금	상하수도사업소			
		가스요금	삼천리 등			
		아파트관리비	아파트 관리사무소	2015.10월		
	대출	주금공 모기지론	주택금융공사		2015.10월	
		저축은행 대출	저축은행			
		보험약관 대출	보험사			
		카드론	카드사		2015.10월	
	교육비	스쿨뱅킹	학교(초·중·고교)	2016.6월		불가②
		학습지·학원비	학습지회사			
	할부금	리스·렌탈료	일반회사			
	세금	지방세·세외수입	지방자치단체		2015.10월	
	기타	신문·우유 대금 등	신문사 및 우유회사 등			
		후원금③	종교단체 등			
자 동 송 금	적금	청약예금, 개인연금 등	해당없음	2016.2월		
	회비	동호회비 등				
	월세	월세				
	후원금③	후원금				

① 일부 요금청구기관은 금융회사와의 계약관계 및 전산개발 일정 등으로 인하여 서비스 실시 일정 상이

② 스쿨뱅킹은 학교가 특정 은행을 통해서만 자동납부할 수 있도록 지정하고 있어 타행 계좌로 변경이 불가능

③ 후원금 자동이체는 자동납부 또는 자동송금 방식 모두 가능

IV 고객(소비자) 유의 사항

- 7월 1일 이후 Payinfo에서 실수로 자동납부 해지를 신청한 경우 당일(17:00 이전)에만 취소할 수 있으므로,
 - 즉시 요금청구기관에 자동납부계좌를 재등록해야 미납·연체 처리로 인한 신용등급 하락, 연체수수료 부과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음
- ➡ 해지 신청 전에 반드시 요금청구기관과의 물품·서비스 계약이 종료되었는지, 다른 자동납부 수단이 있는지 등을 정확히 확인할 필요

※ Payinfo 서비스 이용 안내를 위해 고객센터(☎1577-5500) 운영

- Payinfo에서 조회된 자동납부 중 불확실한 내역은 요금청구기관에 직접 문의할 수 있도록 조회 화면에 해당 기관 연락처도 게재

V 향후 계획

- Payinfo가 완전하게 구축되고 일정기간 동안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제공되면 「계좌이동서비스」 고도화 추진
 - 서비스 시행 초기에는 활성화보다 시스템 안정화가 중요
 - 기본 기능(은행권 자동이체 변경)을 우선 제공하고 서비스 안정화 후 서비스 제공범위, 참가 금융회사 등을 단계적으로 확대 검토
 - 해외의 경우*에도 도입 초기에는 제한된 범위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충분한 기간(4~5년) 경과 후 서비스 고도화를 추진

* (영국) '09년 개시 → '13년 개선, (호주) '08년 개시 → '12년 개선

1 계좌이동서비스 개요

1. 계좌이동서비스란 무엇인지?

- 영국('09년), 호주('08년) 등에서 시행 중인 '계좌이동서비스 (Account Switch Service)'는 고객의 주거래계좌 변경과 관련된 사항을 신규 금융회사가 일괄 처리해주는 서비스를 의미
- 서비스의 핵심 기능은 기존 계좌에 연결된 자동이체를 신규 계좌로 변경하는 것이며,
- 각 국가별 금융여건에 따라 기존 계좌 해지, 잔고 이전, 리다이렉션(Redirection)* 등 부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도 있음

* 요금청구기관이 오류로 기존 계좌에 출금 요청시 요금청구기관으로 변경내역 통보

2. 향후 계좌이동서비스 추진 일정은?

- 7월 1일 Payinfo 홈페이지 오픈 및 '자동납부 조회·해지' 서비스를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시스템을 구축하여,
- '16.2월부터 Payinfo 및 전국 은행지점 어디서나 자동납부·송금에 대한 조회·해지·변경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

이용경로	자동이체 ¹⁾	서비스 (요금청구기관 범위)	'15년						'16년									
			7	8	9	10	11	12	1	2	3	4	5	6	7	8	9	...
Payinfo (온라인)	자동납부	조회·해지 (전체)	'15.7월 ~ (은행 등 52개 금융회사)															
		변경 (대형)	'15.10월 ~ (은행)															
		변경 (전체)	'16.6월 ~ (은행)															
전국 지점 (오프라인)	자동납부 자동송금	조회·해지·변경	'16.2월 ~ (은행)															

1) (자동납부) 요금청구기관이 물품·서비스 제공 계약에 따라 발생한 이용요금을 고객이 지정한 계좌에서 출금(예: 보험료, 휴대폰요금)

(자동송금) 고객이 스스로의 필요에 따라 직접 설정한 입금계좌·이체금액·주기 등 이체조건에 따라 출금(예: 적금, 회비, 월세)

2 Payinfo 홈페이지 이용

3. 「자동이체통합관리시스템」(www.payinfo.or.kr)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하는지?

- ☐ Payinfo는 회원가입 없이 공인인증서 인증으로 이용 가능
 - Payinfo는 은행 등 52개 금융회사에 개설된 계좌 전체에 등록된 자동이체 정보를 일괄 조회하는 서비스이므로,
 - 현재 금융회사가 인터넷뱅킹 서비스에서 계좌주 본인임을 확인할 때 사용하는 방식인 공인인증서 인증이 필요함

4. Payinfo를 이용할 수 있는 요일 및 시간은?

- ☐ Payinfo의 '조회' 서비스는 휴일 여부와 상관없이 매일 오전 9시부터 밤 10시까지(09:00~22:00) 이용 가능하나,
 - '해지·변경' 서비스 및 고객센터(☎1577-5500)는 은행 영업일 아침 9시부터 오후 5시까지(09:00~17:00) 이용 가능

5. 인터넷뱅킹이 가입되어 있지 않은 금융회사의 계좌에 등록된 자동이체도 Payinfo에서 조회 등이 가능한지?

- ☐ 고객이 해당 금융회사의 인터넷뱅킹에 가입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Payinfo에서 조회 등 서비스를 이용 가능
 - 다만, 인터넷뱅킹에서 조회가 되지 않도록 고객이 금융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'보안계좌' 등은 Payinfo 서비스 이용이 어려움

3 자동납부 조회

6. 7월 1일부터 Payinfo 홈페이지 오픈을 통해 달라지는 부분은?

- ☐ 현재도 각 은행 지점 및 인터넷뱅킹에서 해당 은행의 계좌에 등록된 자동이체 정보를 조회·해지할 수 있으나,
 - 7월 1일부터는 Payinfo에서 52개 금융회사에 개설된 계좌에 등록된 자동이체를 한꺼번에 조회하고, 이 중 계약 종료 등으로 불필요한 정보는 선택하여 해지를 신청할 수 있음

7. Payinfo에서 조회 가능한 계좌의 범위는?

- ☐ 모든 은행(19개*)에 개설된 개인·법인 계좌에 등록된 자동납부의 조회·해지 서비스는 7월 1일부터 이용 가능
 - * 수출입은행(예금 비취급)을 제외한 국내은행 17개 + 농협중앙회·단위수협
- 은행에 개설된 계좌라 하더라도 자동이체가 등록되어 있지 않은 계좌는 Payinfo 서비스 대상이 아님
- ☐ 은행 외 33개 금융회사*의 계좌에 등록된 자동납부도 7월 1일부터 조회할 수 있으나, 해지는 7월 중 이용 가능

* 우체국, 새마을금고, 신용협동조합, 상호저축은행, 산림조합, 23개 증권사, 5개 외은지점(구체적인 금융회사 목록은 Payinfo에서 확인 가능)

8. 급여 등 정기적으로 입금되는 내역도 조회가 되는지?

- ☐ Payinfo는 고객 계좌에서 자동이체(자동납부 또는 자동송금) 방식으로 출금되는 내역을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으로,
 - 급여, 연금, 물품대금 등 고객 계좌로 정기적으로 입금되는 정보는 Payinfo에서 조회되지 않음

4 자동납부 해지

9. Payinfo에서 이미 종료된 계약과 관련된 자동납부가 조회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?

- ☐ 고객과 요금청구기관간 계약이 종료(대금 완납)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요금청구기관이 등록정보를 삭제하지 않은 경우 종료된 계약에 대한 자동납부가 일부 조회될 수 있으며,
 - 이 경우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‘해지’*함이 바람직
- * Payinfo에서 해지 신청하거나, 해당 요금청구기관 또는 금융회사에 직접 연락
- ☐ 은행과 요금청구기관들은 ‘15.2월부터 불필요한 정보를 약 4억건 삭제하는 등 자동납부 정비작업을 계속하고 있으며,
 - 불필요한 자동납부를 적시에 해지하지 않은 요금청구기관은 자동납부 서비스 이용이 제약되도록 추진

10. Payinfo에서 자동납부 해지 완료까지 걸리는 시간은?

- ☐ Payinfo에서 해지를 신청하면 해당 은행에서 다음날 해지 처리되고 Payinfo에서는 2영업일 뒤에 조회 가능
 - 자동납부일이 해지 신청당일이나 다음날에 해당할 경우 해지를 신청하였다 하더라도 기존 계좌에서 자동납부될 수도 있음

11. Payinfo에서 자동납부 해지를 신청할 경우 유의사항은?

- ☐ Payinfo에서 실수로 자동납부 해지 신청시 당일(17:00 이전)에만 취소할 수 있으므로 자동납부의 유효성 등을 정확히 확인할 필요
 - 고객이 유효한 자동납부를 해지 할 경우 이용대금 미납·연체 등으로 신용등급하락, 연체수수료 부과 등 불이익 발생 가능
 - 당일 취소 신청을 못했을 경우에는 즉시 해당 요금청구기관에 직접 연락하여 자동납부계좌를 재등록해야 불이익이 없음

5 소비자 보호

12. 소비자 보호 방안도 마련되어 있는지?

☐ Payinfo는 유효한 자동납부를 해지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고객 피해(미납·연체 등)를 해지 신청 전에 고지하고 있으며,

- 해지 처리 과정에서 전산오류 발생시 명확한 책임소재*를 은행과 Payinfo간 업무규약 등에 반영한 상태

* (Payinfo 책임) 은행에 고객의 해지요청과 다른 건을 전달 또는 전달하지 않은 경우
(은행 책임) Payinfo의 해지요청과 다른 건을 삭제 또는 삭제하지 않은 경우

☐ '15.10월 자동납부 변경 서비스 개시 전 소비자피해 구제방안과 리다이렉션* 시행 방안 등을 은행권 공동으로 마련할 계획

* 요금청구기관이 오류로 기존 계좌에 출금 요청시 요금청구기관으로 변경내역 통보

13. 52개 금융회사의 자동이체 정보를 Payinfo에 집중하여 보관하는데 개인정보 유출 등 보안상 문제는 없는지?

☐ Payinfo를 운영하는 금융결제원은 금융회사의 핵심 지급결제 시스템인 금융공동망 운영과 공인인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,

- Payinfo 전산시스템 전반에 대하여 최고 수준의 보안 대책을 수립·운영하여 정보유출 가능성을 최소화해 나가겠음

☐ Payinfo는 회원가입 없이 공인인증서로 서비스를 제공하므로 회원가입에 필요한 개인정보(예: 전화번호, 주소)를 보관하지 않음

- 민감 정보인 주민등록번호와 계좌번호는 암호화 및 마스킹 처리 후 보관하므로 유출된다 하더라도 정보로서 무의미
- 기타 납부자번호, 이용기관코드, 자동이체 등록일 등은 자동이체 업무를 위해 요금청구기관이 부여한 단순 일련번호로 타 기관에게는 활용가치가 없는 정보임